

일본에서의 병원 이용법



○보험증을 가지고 가자

보험증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제시하는 카드입니다. 회사나 관청에서 발행합니다. 일본에서는 병원에서 보험증을 제시하면 나라의 기준으로 정해진 의료비의 3할로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을 안 가져가면 전액 자기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준이 아닌 병원이 자유롭게 의료비를 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잊지 말고 보험증을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마이넘버카드를 보험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하루빨리 마이넘버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증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

보험증은 일본의 대부분의 병원이나 조계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요법 등 나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 및 미용성형이나 치열교정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 인공 임신중절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이나 통근 중에 다친 경우, 회사 근무자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노동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동재해보험이 보상해 줍니다. 회사로 상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험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비용의 절약방법】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해주는 의료기관은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할증료가 부과되어 의료비가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외 진료는 추과요금이 부과된다

진료시간외(야간, 새벽, 휴일(일, 공휴일), 심야)에 진찰을 받으면 통상요금과는 별도로 추과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홈페이지 등에서 진료시간을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큰 종합병원에 가면 특별요금이 부과된다

큰 병원에 소개장 없이 가면 특별요금이 5000 엔 이상 부과됩니다. 우선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는 소개장을 받아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시다.

◇복수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가 비싸진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니까」「병원이 머니까」 등의 이유로 병원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도중에 병원을 바꾸면 매번 「초진료」가 발생하고 검사나 투약도 중복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비싸집니다. 다니는 병원(주치의)을 정해서 같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도록 합시다.